

광주 전역 분리 배출한 쓰레기 재활용 비율 절반도 못미쳐

이물질 묻고 일반쓰레기 뒤섞여 분리 배출 실효성 '의문'
음료 용기 등 일부 플라스틱, 열 가공 어려워 '전량 폐기'
일부 자치구, 관련 통계 집계 못해... "각 주체 노력 절실"



2월27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가공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절반이 채 안 될 겁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장.

가정·사업장·공장 등지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 차량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 2층 컨테이너 구조 건물인 선별장으로 옮겨졌다.

선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중 종이·캔·플라스틱·비닐 등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쓸모 있는'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용기·스티로폼 배출량도 덩달아 늘어 선별장에선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낳다.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였지만, 대부분은 비재활용·소각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엔 빨강과 노란 양념이 묻어 나왔다. 종이류로 분류되는 치킨을 담은 상자에선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나왔고, 마요네즈·식용유 통 등에선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도 섞여 있었다. 선별장 직원들이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자 각종 음식물 쓰레기, 코팅지, 과일 포장 망, 깨진 병, 도자기, 아이스 팩, 고무장갑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재활용품 가공 공정을 거치기 어려운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1층 폐기장으로 옮겨졌다. 폐기장 내 쓰레기는 모두 소각 또는 매립된다.

직원 A씨는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 중 절반 가량은 분리 배출이 잘못 됐다. 대부분 양념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재활용 대상이 아닌 것이 섞여 선별장에 도착한다. 실제 재활용 비율로 따지면 절반에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 선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선별장 한 칸엔 스티로폼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5~6m 가량 높이에 달했다.

스티로폼 상자는 2~3개가 함께 노끈으로 고정됐거나,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비재활용 소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모두 한꺼번에 폐기된다.

선별장 관계자 B(65)씨는 1차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티로폼이 1kg당 400원이다. 스티커와 노끈을 스티로폼 상자에서 제거하는 '불순물 제거 작업' 인건비가 더 든다. 복잡한 제거 작업이면 바로 폐기하는 상황"이라며 "1차 분리 배출만 잘 이뤄져도 자원 재활용 비율이 늘어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제대로 분리 배출이 이뤄지더라도 재활용품 공정 상 문제로 단순 소각되는 사례도 있다.

커피 음료 컵, 스티로폼 일회용기는 같은 플라스틱 품목이라도 재질과 녹는 점 등이 달라 정밀 처리·공정 업체가 마땅치 않다.

B씨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폴리에틸렌), PS(폴리스티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종류가 다양하다. 재질에 따라 분류, 가공해야 한다. 특히 커피 음료를 담은 컵은 열 처리가 공이 쉽지 않다. 분류를 하더라도 재처리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아 소각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일한 분리 배출 습관·공정 상 한계 등으로 재활용 비율은 50~60% 밖에 안 될 것으로 본다. 이는 같은 실태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이 같은 실태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재활용 쓰레기 배출 대비 폐기 비율은 45.49%다. 광주시 전역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 2만8581.31t 중 1만3002.71t이 소각 또는 매립 형태로 폐기됐다. 매년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소각 또



지난 2월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될 스티로폼이 약 5m 쌓여있다.

는 매장되는 양은 전체 배출량의 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재활용 처리 비율이 70% 이상을 기록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동구·서구는 재활용 쓰레기 폐기량 관련 일부 통계를 집계조

차 못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은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각 주체별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행정당국은 관련 통계 등을 제대로 관리하

고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소각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은 만큼, 선별·재가공 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폐특법 개정' 화순군 폐광기금 증액·경제회생 기대감

구충군 군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폐특법 적용을 받는 화순군도 폐광기금 증액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1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

용 시한을 2045년 12월31일까지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항구와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현행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폐광기금은 기존 1452억에서 1926억원으로 474억원(32%) 증가해 화순군 폐광기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구충군 화순군수는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온라인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시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 문의전화 | 061-470-2347